



4면

전주시 아파트거레 특별조사단
가격 급등 시기 불법투기 116건 적발

전주매일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음 2월 19일) 제274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30일 군산대학교 인근 혁신타운 사업대상지 현장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과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타운 착공식'이 열렸다.

전북도내 사회적경제 혁신거점 조성 '첫 삽'

군산서 혁신타운 착공식

280억원 투입 내년 8월 완공
공유실업 등 집적공간으로
지하 1·지상 4층 규모 신축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감도

사회적경제 주체의 집적화를 통한 네트워크, 판로확보, 전문인력양성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본격도에 오르게 된다.

전북도는 30일 군산대학교 인근 혁신타운 사업대상지 현장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과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타운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에 초청된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지난 2019년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총사업비 280억원(국비 140억, 도비 88억, 군산시비 42억, 특별교부세 10억)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647㎡ 규모로 신축되는 교육 연구 및 근린생활 시설로, 오는 2022년 8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혁신타운'은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돕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 주기적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연대허브, 혁신양성, 공유실업, 연구혁신, 교류활동 등을 위한 집적공간으로 이뤄진다.

지하 1층에는 공동장비를 활용, 창의

적 상품화 실험을 위한 시제품 공동제작실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지역 특산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 시설이용자를 위한 구내식당 등이 배치된다.

지상 1층에는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이 가능한 다목적강연실, 방문객의 휴게 및 편의제공을 위한 카페, 소·중 규모 회의·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분임토의실,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목적교류공간, 사회적금융 지원을 위한 상담실 등으로 구성된다.

지상 2층은 개별 사회적경제기업 및 조직이 임대해 사용할 수 있는 입주공간,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사회혁신 아이디어 상품 및 혁신기술을 적용한 창업 등을 연구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연구실 등이 배치된다.

지상 3층에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과 혁신타운 운영주체 및 입주형의체가 사용하는 사무공간, 사회적경제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체험교육장(라이브러리), 사회적경제 분야 정책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공간 등이 들어선다.

지상 4층에는 2층과 같이 개별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배치되며, 특히,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연수활동에 따른 숙박공간(2~4

인실, 8인실) 등도 마련된다. 혁신타운 조성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독립성은 유지하되, 지형을 최대한 살려 인근 군산대와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각종 정부가 인정하는 인증도 취득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방향에 발맞춰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적용과 고효율 조명기기(LED)를 사용해 에너지 손실은 최소화하고 효율이 높은 친환경·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 설계됐다.

장애인·어린이·노인·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물 없는 건축물로 건립할 계획으로,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제로에너지 예비인증 취득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외부도 사회적경제 혁신활동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진다.

부지와 도로 경계에는 주민들의 보행 흐름을 고려해 휴게장소로 제공될 이야기마당, 건물의 주출입구 인근에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맞이마당, 건물과 건물사이의 중앙에는 이용자의 휴게 및 야외혁신실험을 위한 숭마루마당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오늘 첫 삽을 뜨는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국 최초로 착공하는 만큼 국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해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사회적 서비스를 마련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추가 확산시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검토

전주 곳곳 집단감염 발생
최명규 부시장 "역학조사
결과 따라 조치 취할 계획"



30일, 최명규 전주부시장이 유튜브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검토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전주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 시가 우선 집단감염이 발생한 호성동 마을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추가 확산 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키로 했다.

최명규 전주부시장은 30일 유튜브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자발적인 방역조치 등 예방을 통해 지역내 감염 확산세를 멈추고자 노력했으나 안타깝게도 일상생활 속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집단감염에 따른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는 최근 미니리광 작업장 근무자와 마을주민 등 12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호성동 한사월 마을에 대해 정확한 역학조사와 확산방지를 위해 30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3일간 한시적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해당 마을이 거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자로 기어오란 의존하는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고, 감염원 및 감염경로 파악 등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3일간의 이동제한 행정명령 이행여부 및 마을주민 진단검사 결과 등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이번 주말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현황 등을 면밀하게 지켜본 뒤,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예고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지난 28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가 첫 발생 이후 호성동 한사월 마을에서는 마을 작업장 근무자와 마을 주민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총 12명이 확진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마을주민(66명)의 5분의 1 수준이다. 또, 검제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목욕탕에서도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가 8명이 추가되는 등 전주지역에서 크고 작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기준치에 육박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송하진 도지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지속 발굴"

군산 구암지구 현장 방문... 7월부터 본격 착공 2024년 완공 목표

송하진 도지사가 30일 군산시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현장을 찾았다.

해당지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재해예방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날 현장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김중식 전북도의원, 구암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송 지사가 현장 방문한 구암지구는 내수배제(內水排除)가 불량해 2011년 집중호우, 2012년 태풍 볼라벤, 2018년 집중호우에 상습적으로 주거지 및 상가가 침수돼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이

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재해예방 공모사업에 구암지구가 선정되며, 400억 원의 총사업비를 확보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해 우수관로 1.46km, 저류지 9,000㎡, 배수펌프장 1개소 등을 추진해 재해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구암지구는 올해 6월까지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착공 후 2024년도에 준공 예정이다.

송 지사는 현장을 둘러보며,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견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앞으로는 주민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현장 관계자에 당부했다.

이어, 송 지사는 "앞으로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대한민국 농어촌의 희망을 경영합니다

농어촌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입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꾸는 우리 농어촌.
어제의 농어촌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듯이
오늘의 농어촌이 내일의 우리나라를 만듭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생산지원
농어촌농수 및
유지관리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
자재 및
해위사업
KFC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